

제 4 교시

사회탐구 영역(윤리와 사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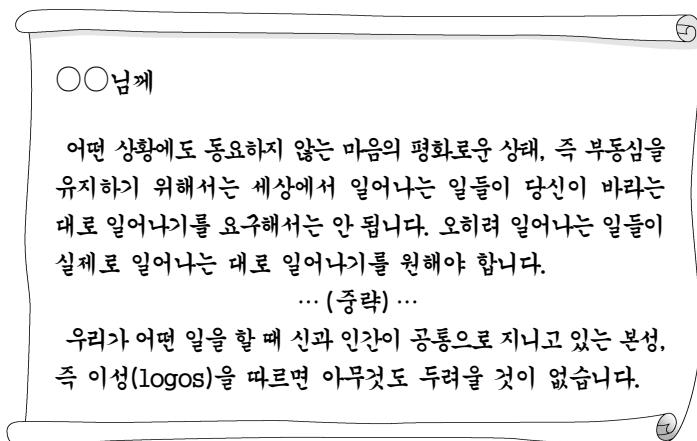
성명

수험 번호

제 [] 선택

윤리와 사상

1. 다음 가상 편지를 쓴 고대 서양 사상가가 강조하는 삶의 태도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 감각적인 쾌락을 추구해야 한다.
- ② 만물을 창조한 인격적 존재인 신과의 합일을 지향해야 한다.
- ③ 공리의 원리에 기초하여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을 실현해야 한다.
- ④ 자연을 지배하는 보편적 이성의 명령에 따라 운명에 순응해야 한다.
- ⑤ 인간은 만물의 척도이므로 객관적 진리가 없음을 깨달아야 한다.

2. 고대 서양 사상가 갑, 을의 입장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갑: 덕은 이성이 탁월하게 발휘되는 상태이다. 덕 가운데 어떤 것은 지적인 덕이라 부르며, 다른 어떤 것은 도덕적인 덕이라고 부른다. 철학적 지혜나 이해력, 실천적 지혜는 지적인 덕이요, 온화라든가 절제는 도덕적인 덕이다.
을: 쾌락은 마음의 혼란과 육체의 고통으로부터의 자유이다. 쾌락은 모든 가치를 평가하는 최고선이자 행복한 삶의 시작이고 끝이다. 아름다움과 탁월함도 우리에게 쾌락을 제공해 주지 못한다면 버려야 한다.

<보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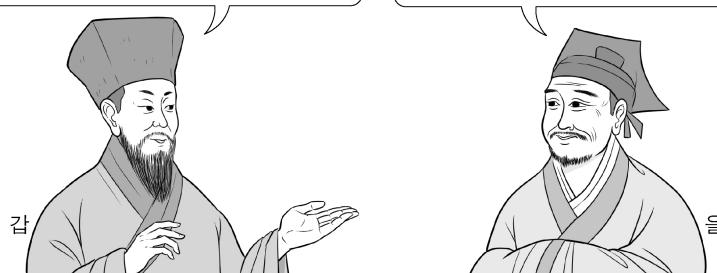
- ㄱ. 갑: 실천적 지혜는 행동에 영향을 미칠 뿐 감정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 ㄴ. 갑: 도덕적인 덕은 영혼의 이성적인 부분에만 관계되고 습관에 의해 형성된다.
- ㄷ. 을: 명예욕이 충족되지 않더라도 고통은 유발되지 않는다.
- ㄹ. 갑, 을: 행복한 삶을 위해 이성의 능력을 발휘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 ① ㄱ, ㄴ
- ② ㄴ, ㄷ
- ③ ㄷ, ㄹ
- ④ ㄱ, ㄴ, ㄹ
- ⑤ ㄱ, ㄷ, ㄹ

3. 그림은 중국 유교 사상가 갑, 을의 가상 대화이다. 갑, 을의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앎과 실천은 본래 하나입니다[知行合一]. '효도할 줄 안다'는 것은 효도를 실천했을 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효도라는 말의 뜻을 이해하는 것만 가지고서는 '효도할 줄 안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앎과 실천은 언제나 서로가 의존합니다. 앎과 실천의 관계는 '눈은 밭이 없으면 가지 못하고 밭은 눈이 없으면 볼 수 없는 것'과 같습니다. 다만 선후(先後)를 논할 때에는 앎이 실천보다 먼저입니다.



- ① 갑: 사욕을 제거하여 행위 주체의 도덕성을 회복해야 한다.
- ② 갑: 성인(聖人)은 백성과 달리 불변하는 본성인 양지를 지닌다.
- ③ 을: 격물(格物)은 이치를 궁구하여 본연지성을 바로잡는 일이다.
- ④ 을: 먼저 알아야 실천할 수 있기에 앎[知]이 실천[行]보다 중요하다.
- ⑤ 갑, 을: 마음 바깥에 이치가 없고 마음 바깥에 사물이 없다.

4. 다음을 주장한 고대 동양 사상가의 입장으로 옳은 것은? [3점]

이것이 있기 때문에 저것이 있고, 이것이 일어나기 때문에 저것이 일어난다. 즉 무명(無明)을 조건[緣]으로 행(行)이 있고 행을 조건으로 식(識)이 있으며 식을 조건으로 정신과 물질[名色]이 있고 … (중략) … 생(生)을 조건으로 늙음, 죽음, 근심, 슬픔, 고통, 번뇌가 있다. 이와 같이 큰 괴로움의 무더기가 모인다.

- ① 영원한 본성을 가진 자아만이 독립적으로 존재할 수 있다.
- ② 무상(無常)한 것들 사이에는 어떤 관계도 존재하지 않는다.
- ③ 인연(因緣)에 의해 생성된 모든 현상은 더 이상 변화하지 않는다.
- ④ 오온(五蘊)으로 구성된 존재만이 고정되어 있음을 자각해야 한다.
- ⑤ 인간은 현상 세계의 모든 존재에 대한 집착에서 벗어나야 한다.

5. 다음을 주장한 중세 서양 사상가의 입장으로 옳은 것은? [3점]

이성적 피조물은 영원한 이성 안에 참여함으로써 적절한 행동과 목적에 대한 자연적 성향을 지닌다. 이성적 피조물 안에서 영원법의 참여가 바로 자연법이다. 자연법의 제1 원리는 “선을 행하고 악을 피하라.”라는 것이다. 이것은 자기 생명을 보존하려는 성향, 종족을 보존하려는 성향, 신에 대해 알고자 하는 성향, 사회적 삶을 영위하려는 성향에 의해 구체화된다.

- ① 자연법은 인간의 성향에 근거한다는 이유에서 가변적이다.
- ② 실정법과 자연법은 영원불변의 질서인 영원법에 근거해야 한다.
- ③ 신앙과 이성의 영역은 서로 구분되기 때문에 양립할 수 없다.
- ④ 인간의 궁극적 목적으로서 최고의 행복은 현세에서만 가능하다.
- ⑤ 인간이 마땅히 따라야 할 자연법은 이성으로 인식할 수 없다.

2 (윤리와 사상)

사회탐구 영역

[6~7] 갑, 을은 한국 유교 사상가들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갑: 이(理)는 기(氣)를 주재하는 장수와 같으며, 기는 이의 주재를 받는 졸병과 같다. 사단(四端)은 이가 발하고 기가 따른 것이며, 칠정(七情)은 기가 발하고 이가 탄 것이다.
을: 사단이다 칠정이다 말하는 것은 오로지 이만을 말하는 것과 이와 기를 아울러 말하는 것의 차이에 기인한다. 사단은 칠정을 겸할 수 없으나 칠정은 사단을 겸할 수 있다.

6. 갑, 을의 입장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3점]

<보기>

- ㄱ. 갑: 이는 순선하기에 기가 따르지 않아도 사단으로 드러난다.
- ㄴ. 갑: 사단은 선한 이치[理]이고 칠정은 선악이 섞인 감정이다.
- ㄷ. 을: 도덕 감정과 일반 감정은 동일한 연원에서 유래한다.
- ㄹ. 갑, 을: 마음과 몸을 주재하는 공부로서 경(敬)을 실천해야 한다.

- ① ㄱ, ㄴ ② ㄴ, ㄹ ③ ㄷ, ㄹ
④ ㄱ, ㄴ, ㄷ ⑤ ㄱ, ㄷ, ㄹ

7. 다음을 주장한 한국 사상가가 갑, 을 모두에게 제기할 수 있는 비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하늘[天]이 나에게 성(性)을 부여할 때 선(善)을 좋아하는 감정과 함께 선을 택할 수 있는 능력을 주었다. 사람의 성이 선을 행하기를 좋아함은 마치 물의 성이 아래로 흘러가기를 좋아하는 것과 같다. 하늘이 이 성을 부여하였으니, 온갖 탐욕과 음란과 학살을 행하더라도 이 성은 결코 변하지 않는다.

- ① 사덕(四德)은 성에 내재한 사단을 파악하는 단서임을 간과한다.
② 사덕이 형성되기 이전에는 사단이 존재하지 않음을 간과한다.
③ 형구(形軀)의 기호가 천부적으로 사단에 포함되어 있음을 간과한다.
④ 사덕은 선을 좋아하는 기호를 실천하여 형성되는 것임을 간과 한다.
⑤ 영지(靈知)의 기호를 지닌 인간은 선을 행할 수밖에 없음을 간과한다.

8. 중국 불교 사상가 갑, 한국 불교 사상가 을의 입장으로 옳은 것은?

갑: 자기의 본래 마음을 아는 것이 본래의 성품을 보는 것이니, 깨달으면 원래 차별이 없고 바로 최상의 지혜를 이루게 된다. 그러므로 법(法)에는 단박에 깨달음만 있을 뿐 점차로 깨달음이 있을 수 없다.
을: 자기의 본래 성품이 부처와 다르지 않음을 깨달았다 하더라도 습기(習氣)는 갑자기 버리기 어렵다. 얼음 연못이 전부 물인 것을 알지만 별의 기운을 빌려야 녹여지는 것처럼 깨달음을 바탕으로 훈습(薰習)하고 닦아야 한다.

- ① 갑: 경전 공부를 거치지 않고서는 본성의 자각에 이를 수 없다.
② 갑: 마음의 직관을 통해 중생에게 불성(佛性)이 없음을 알 수 있다.
③ 을: 마음이 아닌 오직 말과 글로만 가르침을 전달할 수 있다.
④ 을: 오랫동안 쌓아온 습기를 제거한 후에만 단박에 깨칠 수 있다.
⑤ 갑, 을: 선정[定]과 지혜[慧]를 통해 부처의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

9. 근대 서양 사상가 갑, 현대 서양 사상가 을의 입장으로 옳은 것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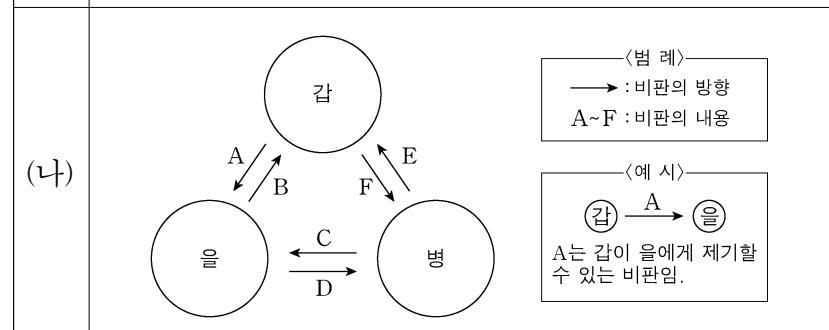
[3점]

갑: 의무에 맞는 행위와 의무로부터 나온 행위 사이의 구별은 다음과 같은 점에 의거한다. 의무에 맞는 행위는 그 행위의 동기가 순전히 경향성일 때에도 가능하지만, 의무로부터 나온 행위는 오로지 도덕 법칙으로부터 비롯되는 것이다.
을: 조건부 의무를 부여하는 근거가 있다. 예를 들면, 약속한 자와 약속받은 자, 부모와 자식, 친구와 친구의 관계가 조건부 의무를 부여한다. 그러나 조건부 의무 사이에 갈등이 발생하면 더 강한 의무가 우리의 실제 의무가 된다.

- ① 갑: 의무로부터 나온 행위는 결코 행복 증진에 기여하지 못한다.
② 갑: 의무로부터 나온 행위와 의무에 맞는 행위는 모두 자율적이다.
③ 을: 조건부 의무들은 서로 충돌하기 전까지는 실제 의무가 된다.
④ 을: 조건부 의무들이 충돌하는 상황이 달라지더라도 조건부 의무들 간의 우선순위는 불변한다.
⑤ 갑, 을: 인간이 따라야 할 절대적이고 단일한 옳은 의무가 존재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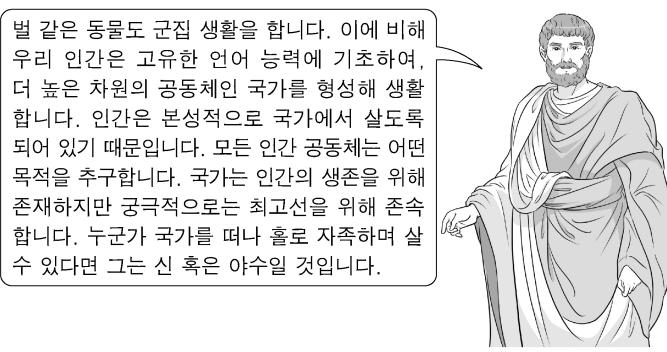
10. (가)의 근대 한국 사상가 갑, 을, 병의 입장에서 서로에게 제기 할 수 있는 비판을 (나) 그림으로 표현할 때, A~F에 해당하는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가) 갑: 강화(講和)가 이루어지면 사학(邪學)의 서적과 종교가 들어올 것이고, 사학이 온 나라에 퍼질 것이다. 이를 내버려 둔다면 예의는 시궁창에 빠지고 인간들은 금수가 될 것이니 사학을 배척해야[斥邪] 한다.
을: 우리의 도는 무위이화(無爲而化)이다. 마음을 지키고 기운을 바르게 하고[守心正氣] 한울님의 성품을 거느리고 한울님의 가르침을 받으면, 자연스러운 가운데 조화가 나온다.
병: 동양의 삼강과 오상, 효제충신은 오랑캐의 땅에서도 버릴 수 없는 도(道)이다. 예악과 형정, 복식과 기용은 수시로 변하는 기(器)이므로 서양의 것이라도 백성에게 이롭다면 사용할 수 있다.



- ① A: 만민 평등사상을 고취하여 외세에 대응해야 함을 간과한다.
② B, D: 고유 사상을 중심으로 모든 유교적 가치를 배척해야 함을 간과한다.
③ C: 사람이 곧 하늘임을 깨닫고 새 세상을 열어야 함을 간과한다.
④ E: 서양의 정신과 문물을 적극적으로 수용해야 함을 간과한다.
⑤ F: 성리학적 가치와 서양의 기술은 조화될 수 없음을 간과한다.

11. 그림의 강연자가 지지할 주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인간 공동체들 중 국가만이 좋은을 추구할 수 있다.
- ② 인간의 물질적 자족을 위해 국가가 존재하는 경우는 없다.
- ③ 국가가 형성된 후에만 인간은 언어 능력을 발휘할 수 있다.
- ④ 국가는 인간 공동체의 단계로서 최고의 좋은을 추구한다.
- ⑤ 인간은 공동체를 형성하려는 본성이 있지만 행복의 실현을 위해 국가를 결성한다.

12. 고대 동양 사상가 갑, 을은 부정의 대답을 할 질문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갑: 왕자(王者)가 되려면 예(禮)를 높이고 현자(賢者)를 존중해야 한다. 신뢰를 받으면 패자(霸者)가 되며, 이익을 좋아하고 거짓을 일삼으면 위태로워진다. 성왕이 제정한 예로써 백성을 다스리면[禮治] 조화롭게 살 수 있다.
을: 왕도(王道)는 모든 사람이 산 사람을 봉양하고 죽은 사람을 장사 지냄에 유감이 없도록 하는 데에서 시작한다. 그리고 교육에 힘써 효제의 도리를 가르친다면 반백의 노인들이 거리에서 짐을 지는 경우는 없을 것이다.

- ① 인간은 사사로운 이익에 대한 욕망을 가지고 있는가?
- ② 악한 본성을 변화시켜 인간을 선하게 만들어야 하는가?
- ③ 통치자는 하늘이 부여한 예로써 백성을 교화시켜야 하는가?
- ④ 통치자는 백성을 위해 도덕적인 공동체를 지향해야 하는가?
- ⑤ 부모를 공경하고 사랑하는 것은 타고난 성(性)에 부합하는가?

13. 고대 동양 사상가 갑, 을의 입장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3점]

갑: 세상에 규제가 많을수록 백성은 가난해지고, 백성에게 세련된 도구가 많을수록 나라는 혼란에 빠지게 된다. 최상의 선은 물과 같다. 물은 만물을 이롭게 하면서도 다투지 않고 모든 사람이 싫어하는 곳에 머문다.
을: 자기의 신체나 손발의 존재를 잊어버리고 눈이나 귀의 움직임을 멈추고 형체가 있는 육체를 떠나 분별 작용을 버린다면 도(道)와 한 몸을 이루어 두루 통하게 된다. 이것이 좌망(坐忘)이다. 도는 오로지 텅 빈 곳에 모이는 법이다.

- ① 갑은 하늘과 땅이 자연의 도를 따르기에 어질다고[仁] 본다.
- ② 갑은 언어로 표현할 수 있는 도가 영원한 도[常道]라고 본다.
- ③ 을은 사람은 타고난 능력과 본성에 따라 살아야 한다고 본다.
- ④ 을은 절대 자유에 도달하기 위해 분별적 지식을 쌓아야 한다고 본다.
- ⑤ 갑, 을은 인위에 얹매이지 않기 위해 하늘이 정해 준 예법을 따라야 한다고 본다.

14. 근대 서양 사상가 갑, 을이 공통으로 지지할 입장으로 적절한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3점]

갑: 쾌락의 총량과 고통의 총량을 합산해 보라. 차감한 값이 쾌락 쪽에 기운다면, 그것은 각 개인의 이익과 관련하여 전반적으로 행위의 좋은 경향을 제시하는 것이다. 차감한 값이 고통 쪽에 기운다면, 전반적으로 행위의 나쁜 경향을 제시하는 것이다.

을: 쾌락의 양과 질에 대해 똑같이 잘 알고, 그 둘을 똑같이 즐기고 음미하는 사람들이, 자신의 보다 높은 능력이 동원되어야 하는 특정한 삶의 방식을 훨씬 더 선호한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다. 짐승이 누리는 쾌락을 마음껏 즐기게 해 준다고 해서 짐승이 되겠다고 하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보 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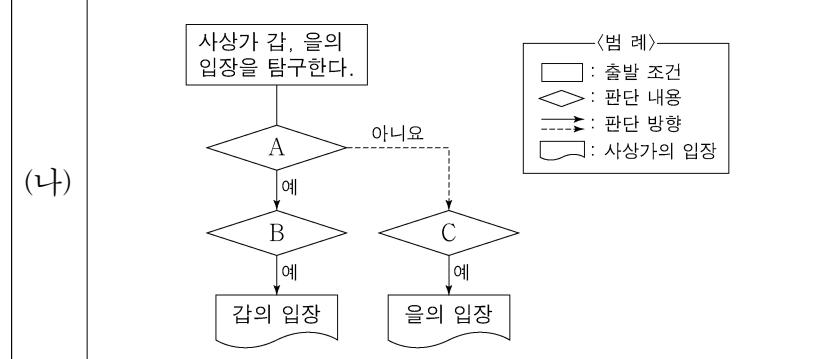
- ㄱ. 인간의 도덕적 의무는 유용성의 원리로부터 도출된다.
- ㄴ. 동기는 행위의 도덕적 가치를 평가하는 핵심 근거가 아니다.
- ㄷ. 교양 있는 사람은 누구든지 질적으로 고상한 쾌락을 선호한다.
- ㄹ. 개인의 사사로운 이익과 사회 전체의 이익은 모순될 수밖에 없다.

- ① ㄱ, ㄴ
- ② ㄴ, ㄷ
- ③ ㄷ, ㄹ
- ④ ㄱ, ㄴ, ㄹ
- ⑤ ㄱ, ㄷ, ㄹ

15. (가)의 사회사상가 갑, 을의 입장을 (나) 그림으로 탐구하고자 할 때, A~C에 들어갈 질문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가)

갑: 어떤 개념이나 원칙을 근거로 삼아 불가침의 영역을 확보하든지 간에 자유는 언제나 ‘~로부터의 자유’이다. 내 활동이 간섭받지 않는 상태가 자유의 핵심이다.
을: 노예의 주인이 관대한 사람이더라도 주인은 여전히 노예를 지배한다. 자유와 노예 상태를 대조하는 것은 자유가 불간섭이 아닌 비지배에 있다고 보는 근거가 된다.



<보 기>

- ㄱ. A: 간섭받지 않을 영역과 자유의 영역은 비례하는가?
- ㄴ. A: 자의적 지배에 의한 간섭은 시민의 자유를 침해하는가?
- ㄷ. B: ‘~로부터의 자유’는 ‘~할 자유’에 의해 보장되는가?
- ㄹ. C: 시민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법치(法治)가 필요한가?

- ① ㄱ, ㄴ
- ② ㄱ, ㄹ
- ③ ㄴ, ㄷ
- ④ ㄴ, ㄹ
- ⑤ ㄷ, ㄹ

4 (윤리와 사상)

사회탐구 영역

16. 고대 서양 사상가 갑, 사회사상가 을의 입장으로 옳은 것은?

갑: 이상 국가의 세 계층은 역할에 적합한 덕을 가지며, 선의 이데아에 대한 지혜를 갖춘 철인의 다스림을 받는다. 이 세 계층은 각자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며 서로 조화를 이룬다.
을: 이상 국가인 유토피아에서는 일하지 못하는 사람도 생계를 걱정할 일이 없다. 유토피아는 사치, 허영, 타락이 없으며 시민들은 덕과 정신적 쾌락을 추구한다.

- ① 갑: 방위자와 생산자는 모두 통치자의 지혜를 따라야 한다.
- ② 갑: 통치자는 후천적 교육이 아닌 선천적 소질에 따라 선발된다.
- ③ 을: 이상 국가는 경제적으로 풍족하지 않지만 평등을 보장한다.
- ④ 을: 이상 국가의 시민은 노동하지 않고 교육과 학문에 집중한다.
- ⑤ 갑, 을: 이상 국가에서는 일부 구성원의 사유 재산이 허용된다.

17. 근대 서양 사상가 갑, 을의 입장으로 옳은 것은? [3점]

갑: 이성으로 감정을 인식하는 것은 감정을 다스리는 가장 탁월한 방법이다. 모든 것은 신, 즉 자연의 본성으로부터 필연적으로 산출되며 우리가 인식할 수 없는 감정은 없다.
을: 이성은 인간이 야수보다 우월하다는 주된 근거이지만, 어떤 행동이나 감정을 직접 유발하지 않는다. 이성은 감정의 노예이고 노예여야 하며, 감정에게 봉사하고 복종할 뿐이다.

- ① 갑: 인간은 자유 의지가 있지만 자유로운 삶을 살 수 있다.
- ② 갑: 신과 달리 인간은 필연적인 자연법칙에서 벗어날 수 없다.
- ③ 을: 선악은 쾌와 불쾌의 감정으로 느껴지는 객관적 실재이다.
- ④ 을: 이성은 선악 구별의 원천일 뿐 행위의 동기가 될 수 없다.
- ⑤ 갑, 을: 도덕적 판단과 행동의 근거는 이성이라기보다 감정이다.

18. 사회사상가 갑, 을의 입장으로 옳은 것은? [3점]

갑: 인간의 고유한 삶의 방식인 노동은 본래 창조적이고 자유로운 활동이어야 한다. 그런데 자본주의는 노동을 한낱 생존 수단으로 격하시킨다. 노동자는 상품만 생산하지 않고 노동자 자신을 일종의 상품으로 생산하는 것이다.
을: 인간은 협력하지 않고 살 수 없다. 타인의 자비심이 아니라 자기애(self-love)에 대한 설득이 협력을 이끌어 내는 데 더 효과적이다. 우리가 식사를 하는 것은 푸줏간과 빵집 주인의 자비심이 아니라 그들의 자기애 때문이다.

- ① 갑: 노동자의 해방이 인류 보편의 해방으로 이어지지는 않는다.
- ② 갑: 인간이 자유롭게 노동할 수 있는 이상 사회는 실현될 수 없다.
- ③ 을: 개인이 추구하는 이익들은 서로 자연스럽게 조화되지 않는다.
- ④ 을: 시장 경제 원리의 실현을 위해 국가의 역할을 최소화해야 한다.
- ⑤ 갑, 을: 사적 소유제로 인간 사회의 공동 이익을 증진해야 한다.

19. (가)의 사회사상가 갑, 을의 입장을 (나) 그림으로 표현할 때, A~C에 해당하는 진술로 적절한 것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3점]

(가)	갑: 사회 계약으로 모든 사람은 각자 신체와 힘을 일반 의지의 지도 아래에 맡긴다. 주권을 지도할 수 있는 것 또한 일반 의지뿐이다. 을: 사회 계약의 목적은 만인의 만인에 대한 전쟁 상태를 극복하는 것이다. 모든 사람은 사회 계약으로 성립된 리바이어던에게 복종해야 한다.
(나)	<p>〈범례〉 A : 갑만의 입장 B : 갑, 을의 공통 입장 C : 을만의 입장</p>

<보기>

- ㄱ. A: 국가는 계약 주체들의 의지가 하나로 결합된 산물이다.
- ㄴ. B: 주권자는 법을 제정할 권한을 반드시 보유해야 한다.
- ㄷ. B: 인민의 동의가 국가 형성의 근거이자 주권의 근거이다.
- ㄹ. C: 자연 상태의 인간은 사회 계약을 통해 생명권을 보장받는다.

- ① ㄱ, ㄴ
- ② ㄱ, ㄷ
- ③ ㄴ, ㄷ
- ④ ㄴ, ㄹ
- ⑤ ㄷ, ㄹ

20. 현대 서양 사상가 갑, 을의 입장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갑: 절망은 죽음에 이르는 병이다. 자기에 대해 절망하고, 절망한 자신으로부터 탈피하려고 하는 것이 절망의 공식이다. 이러한 절망에서 벗어나기 위한 주체적 결단을 통해 무한한 실재성을 획득하게 될 것이다.

을: 인간은 자유로우며 자유 그 자체이다. 바로 이것이 내가 인간은 자유롭도록 선고받았다는 말을 통해 표현하려는 것이다. 세상에 내던져진 이상 자신이 하는 모든 것에 대해서 책임이 있기 때문에 인간은 자유롭다.

<보기>

- ㄱ. 갑: 인간은 신의 존재 없이도 진정한 실존을 찾을 수 있다.
- ㄴ. 을: 인간의 본질은 주어진 것이 아니라 만들어 가는 것이다.
- ㄷ. 을: 인간은 자유를 선택할 때에만 비로소 자유를 부여받게 된다.
- ㄹ. 갑, 을: 인간의 불안은 참된 실존을 회복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

- ① ㄱ, ㄴ
- ② ㄱ, ㄷ
- ③ ㄴ, ㄷ
- ④ ㄴ, ㄹ
- ⑤ ㄷ, ㄹ

* 확인 사항

- 답안지의 해당란에 필요한 내용을 정확히 기입(표기)했는지 확인 하시오.